

- 주요 뉴스: 미국, 영국과 무역협약 체결 중국과도 관세 인하 등 실질적 협상 진전 기대
 - 미국 1/4분기 노동생산성 '22년 이후 첫 감소.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예상치 하회
 - 영란은행, 금리 0.25%p 인하.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
 - 중국, 미국에 관세 철폐 요구. 러시아와는 군사 등 전략적 동맹 강화 성명 채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美英 무역협약의 및 향후 여타국과의 협상 낙관론 부각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6%], 달러화 강세[+1.0%], 금리 상승[+11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양호한 주간 노동지표 및 기술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美英 무역협약에 따른 무역 긴장 완화, 국채금리 상승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7%, 1.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기대 등으로 상승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6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402.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05.0원, 0.6% 상승). 한국 CDS 약보합

		5/8일	5/7일	전일대비			5/8일	5/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663.9	5,631.3	+0.58%	국채 금리 10y	미국	4.38%	4.27%	+11bp
	유럽	535.63	533.47	+0.40%		독일	2.54%	2.48%	+6bp
	중국	3,352.0	3,342.7	+0.28%		영국	4.55%	4.46%	+9bp
	일본	36,929	36,780	+0.41%	CDS 5y	한국	31bp	31bp	-0bp
	한국	2,579.5	2,573.8	+0.22%		중국	57bp	59bp	-2bp
환율	달러지수	100.63	99.61	+1.02%	위험 지표	EMBI+	-	400	-
	유로화	1.1228	1.1301	-0.65%		VIX	22.48	23.55	-4.54%
	엔화	145.91	143.83	-1.43%		WTI유	59.91	58.07	+3.17%
	위안화	7.2428	7.2275	-0.21%	원자재	구리	456.1	461.7	-1.20%
	원화	1,396.6	1,398.0	+0.10%		금	3,305.7	3,364.5	-1.7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영국과 무역합의 체결. 중국과도 관세 인하 등 실질적 협상 진전 기대

-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무역 기본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 이에 따르면, 영국은 소고기 및 에탄올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産 농산물과 화학제품에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아울러 롤스로이스가 제조한 항공기 엔진과 부품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며, 영국은 10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
- 미국은 영국産 자동차 10만대에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할 방침(영국의 對美 자동차 수출량이 10만대 수준이어서 실제로는 모든 수출 차량에 기본 관세 적용). 이 외에 영국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며, 디지털세 등 여타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계획
-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영국은 해당 제품의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측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 영국은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받아, 고율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수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전망.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협정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언급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있을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앞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 특히 관세가 현재의 145%에서 낮아질 것이며, 양국은 좋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첨언. 또한 이번 무역협상 이후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부연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파월 의장을 비난. 특히 정책 결정에 너무 늦는 파월 의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언급. 에너지 가격의 하락 등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대규모 관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4분기 노동생산성, '22년 이후 첫 감소.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예상치 하회

- 1/4분기 비농업 노동생산성은 전기비 0.8% 떨어졌는데, 이러한 경우는 '22년 2/4분기 이후 처음. 한편,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8만건으로 전주(24.1만건) 및 예상치(23.0만건) 대비 낮은 수준

■ 뉴욕 연은 조사, 4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비 보합. 가계 재정 전망은 악화

- 뉴욕 연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전월과 동일. 3년 및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상승(3.0%→3.2%) 및 하락(2.9%→2.7%). 한편, 현재 및 향후 재정 여건이 이전보다 나빠졌거나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답변이 늘었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 영향 등인 것으로 추정
- Goldman Sachs는 금년 및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각각 3.5%→3.8%, 2.3%→2.7%). 관세 인상 여파와 달러화 약세 등을 주요 원인으로 거론

■ 영란은행, 금리 0.25%p 인하.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금리를 0.25%p 낮춰 4.25%로 제시.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 다만 베일리 총재는 추가 인하가 가능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발언.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1.5%→1.25%)

■ 중국, 미국에 관세 철폐 요구. 러시아와는 군사 등 전략적 동맹 강화 성명 채택

- 상무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일방적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 시장에서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의사를 쉽사리 꺾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
- 한편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채택. 특히 이번 성명에는 양국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고,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도 더욱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

- 우에다 총재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물가 관련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발언. 한편 인플레이션(연율)이 목표(2%)를 향해 나아간다면, 완화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3월 금융정책금융회의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미국 관세의 경제 영향을 주목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연준 월러 이사 발언. 중국 4월 수출입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견조한 미국 경제, 트럼프 관세 충격 흡수로 장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 - Financial Times

(A resilient US economy can withstand the Trump tariff shock)

- 미국 경제는 관세 충격에도 충분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팬데믹 당시 실업률이 15%까지 상승한 이후 '21년에는 4% 이하로 빠르게 회복된 것처럼, 미국은 그 동안 여타 선진국에 비해 히스테리시스(경기 하강이 생산량과 고용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없이 경기침체에서 탈피하는데 성공
-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모든 수입을 제한하는 극단적 정책의 추진 여부.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모든 수입 경로 차단으로 확대되면 생산성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 한편, 주요국들이 트럼프의 강경한 압박에 쉽게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정책 강도는 완화될 전망. 이에 미국 경제가 영구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美英 무역합의, 압력에 순응한 영국의 신속 결정은 여타국 협상에 부정적 - Financial Times

(Britain's trade deal with Trump may not be good news for the world)

- 美英 무역합의에서 영국은 미국의 10% 기본관세 부과 인정과 다른 국가를 배제한 미국산 소고기 및 에탄올 시장 개방으로 '최혜국 대우' 원칙을 훼손. 이는 영국이 과거부터 주장해온 자유로운 무역과 다자간 규칙 옹호에 위배
- 한편, 영국은 전체 수출 물량에서 미국 비중이 유로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對美 무역흑자가 거의 없기에 빠른 협상이 가능. 하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이번 협상은 향후 트럼프의 변심으로 영국이 보다 큰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협상국들에 불리한 전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 연준의 금리 경로, 인플레이션 입장 차이 등으로 여타국 중앙은행과 상이 - WSJ

(Why the Fed Isn't Ready to Join Other Central Banks in Cutting Rates)

- 연준 파월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과 무역전쟁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로 정책 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 특히 연준은 얼마 전까지 고물가 문제를 겪었기에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중에도 선제적 금리인하 위험 감수에 부정적. 다만, 경제 둔화 증거가 확인된다면 신속한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반면, 유로존과 영국과 같이 인플레이션 둔화 국면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아 금리인하를 결정. 특히 유럽에서는 중국의 對유럽 수출 급증으로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져 큰 폭의 금리인하 여건도 조성(Goldman Sachs)

■ **미국 경제, 관세 충격에도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회피는 가능할 전망 - 블룸버그**

(Tariff will be bad but not recessionary)

- 관세에 관한 계속되는 불확실성과 혼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가격은 경기침체를 미반영. 이는 관세가 성장에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펀더멘털이 강하고 무역의존도가 낮은 미국 경제는 이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
- 관세가 GDP의 0.5~1.0%p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Yale Budget Lab), 이를 경기침체로 보기는 어려운 수준. 관세는 일종의 소비세로 소비자 부담 및 왜곡으로 이어지겠지만, 예상되는 관세 수준이라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 관세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혁신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어 본질적으로 해로운 정책인 것은 분명. 다만, 현 상황에서 이것이 단기간 내에 경기침체를 일으킬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

■ **미국의 트럼프 관세, 자국 수출기업에 타격을 주는 부메랑일 소지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s tariff will boomerang on US exporter)

■ **美英 무역합의, 실질적 내용 부재로 트럼프 정책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 - 블룸버그**

(Trump Announces a UK Trade 'Deal' About Nothing)

■ **美中 무역협상, 파멸적 관세 전쟁 종식을 위해 신뢰 구축 등의 노력이 절실 - 블룸버그**

(Who Blinked First in US-China Trade War? Who Cares?)

■ **미국의 생산성 향상 추세, 트럼프 관세로 일시 중단 불구 장기적으로는 낙관 - 블룸버그**

(The Great Productivity Boom Is Taking a 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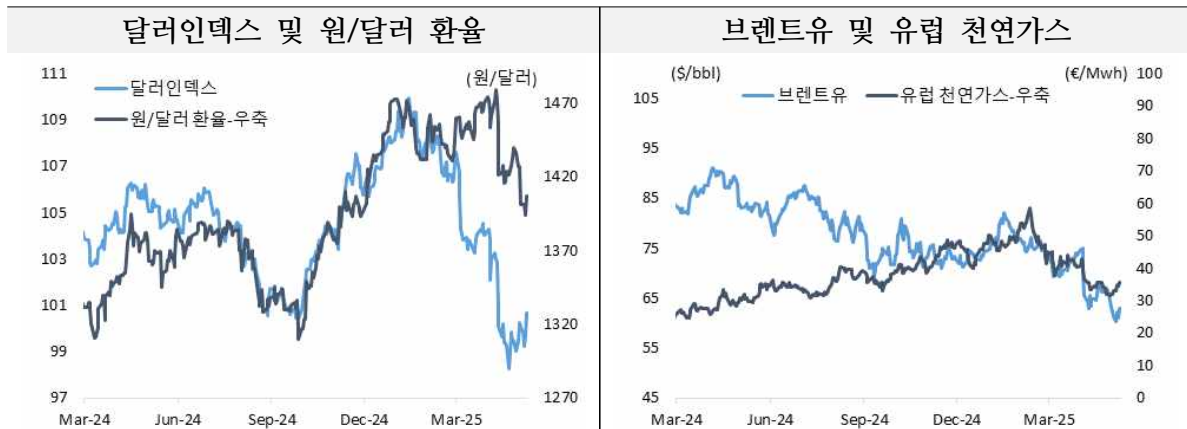
■ **미국 주택가격, 임대료 하락에 따른 매입수요 약화가 하방 요인이 될 전망 - 블룸버그**

(Falling Rents Are Holding the Housing Market Captiv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